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와 재활용산업

김환기 | 한국환경자원공사 산업지원 이사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인 '엔트로피의 법칙'에서 엔트로피는 물질과 에너지(系)의 무질서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만 변화하고 이 때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열역학 법칙에서 볼 때, 우주의 역사는 엔트로피(Entropy)증가의 역사이지만, 지구자원이 유한하다는 사실에서 볼 때에 인류의 미래는 엔트로피의 증가를 얼마만큼 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대량 폐기로 이어지는 경제순환 사이클은 기하급수적으로 쓰레기의 양을 증가시켜 엔트로피의 가시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성장의 한계'의 직면한 지구는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그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 1인당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매립 및 소각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 처리의 선택여지가 좁아지고 있는 국내여건은 재활용 확대라는 자원순환체계의 구축으로 엔트로피의 증가에 대한 대비책으로 당위성을 높여가고 있다. 92년 리우회담에서 확립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패러다임과 폐기물의 감량으로 오염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사전예방 환경정책은 환경과 개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이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일련의 경제활동 속에서 자원순환시스템의 원리가 적용된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는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설계·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PR제도' 운영체계 속에는 시장의 원리가 적용된다. 수탁업체(재활용업체)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의무를 수탁을 받을 경우 그 처리비용에 준하는 대가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은 재활용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재 제조사들 중에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기술과 공정을 가진 업체와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서 시장의 핵심가치인 경쟁이 도입되는 것이다.

재활용업체들 간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 할당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이익극대화를 꾀하려는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EPR제도의 원활한 운영은 재활용 산업에 경쟁과 수익이라는 원인을 제공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EPR제도는 정부·소비자·생산자 각각 역할을 맡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재활용시장의 확대는 물론 경쟁원리와 수익획득이라는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재활용산업 활성화에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